

특집 :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기고'

한국도서관협회와 나

글·이봉순*



내가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0년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취직한 때부터였다. 나는 졸업하고 영어 선생이 되고 싶었다. 그 당시에는 엉뚱한 생각이었다. 영어를 말 살하는 정책을 쓰고 있을 때였다. 박종홍(朴鍾鴻) 선생님의 권유로 하는 수 없이 도서관으로 간 것이었다. 그 때는 도서관이 내 평생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도서관학 대학원 까지 가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마음은 영문학에 있었으나 김활란 총장의 권유로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돌아와서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재건을 맡은 것이 1954년이였다. 나는 도서관학을 공부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영시에 대한 집념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대도서관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주에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엄대섭(嚴大燮) 씨였다. 그 분은 초면인 나를 붙잡고 도서관협회를 살려야 한다고 일장 연설

을 하였다. 도서관인이 흔하지 않은 그 세월에 느닷없이 협회 창립을 들고 나오니 나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대도서관 재건에 머리가 딱 차 있어서 도서관협회 이야기는 전연 흥미가 없었다. 엄대섭 씨는 도서관 재건도 급하지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인들을 교육하고 이끌어 줄 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은 그 책임이 크다고 했다. 나는 별 사람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관장실에 찾아온 손님을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엄선생은 대단히 집요했다. 여러 날 나 같이 도서관 교육을 먼저 받은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지도하고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첫날은 그런대로 보냈는데 이분은 계속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협회보다 도서관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그 분은 협회가 있어야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주장이었다.

* 전 한국도서관협회장(재임기간 : 1981. 5. ~ 1983. 4.)

결국 나는 엄대섭 선생의 고집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내 사무실은 한국도서관협회 산실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무렵 조선도서관협회가 살아 있고 이재욱(李在郁) 박봉석(朴奉石) 씨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셨더라면 우리들의 일은 좀더 쉬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으로 그 맥이 끊어져버린 한국도서관협회를 다시 창립하는 작업은 우리에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엄대섭 씨는 계속 밖으로 돌면서 설득 작업을 하고 박희영(朴熙永)씨와 김중환(金重煥)씨는 협회 조직에 관한 기반을 닦고 있었다. 회칙도 그 무렵에 초안을 작성하였다. 엄대섭, 박희영, 김중환, 세 사람이 안고 씨름한 끝에 드디어 1955년 4월 16일에 창립총회를 국립도서관에서 열게 되었다. 그리고 회장은 조근영(趙根泳) 국립도서관장이 선출되고 나는 전무이사(부회장)가 되었다. 엄대섭 씨는 이 사 겸 간사(幹事)로 뽑혀 사무국장이 되었다.

협회는 창립되었으나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채용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런대로 국립중앙도서관 2층 복도 한 구석을 막아서 사무실을 차리고 책상과 의자는 국립도서관에서 빌리고 다른 것은 전부 엄대섭 씨 자비로 꾸렸다. 전화 받는 여학생도 엄대섭 씨 자비로 채용해서 사무실을 지키게 하였다. 그런 형편에 엄 국장은 한국도서관협회 간판을 국립도서관 보다 더 큰 것을 정문에 대등하게 갖다 달아 놓았다. 국립도서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내 생각은 그런데도 엄대섭 씨는 아주 당당했다. 이제 초라하기는 하지만 사무실도 차렸으니 일을 할 차례라고 엄 국장은 서둘렀다. 급한 것이 도서관인을 교육하는 강습회였다. 그 무렵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도서관 교육을 받은 분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선 강습회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예산이 없었다. 나는

생각하다가 한미재단과 아시아재단 단장을 만나 사정해 보기로 했다. 두 분이 다 우리나라 도서관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했다. 그렇게 하여 한미재단은 강습회 총경비를 대 주기로 하고 아시아재단은 지방에서 오는 수강생들의 여비와 숙식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강습회는 1955년 11월에 국립중앙도서관 별관에서 실시되었는데 참석율도 첫 강습회치고는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이었다. 엄대섭 국장 같은 분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창립하자마자 도서관 교육 강습회 같은 것을 시작할 엄두도 못냈을 것이다. 물론 한 분의 노력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협회의 첫 번째 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저런 일들이 벌써 반세기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도서관협회가 자리를 잡고 많은 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과 사회과학도서관에서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파묻혀서 살다가 1996년에 도서관 일을 접었다. 그 동안 도서관협회와의 인연으로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저명한 학자들과 도서관인을 만나고 개인적인 우정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고 보니 나는 협회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인 것 같다. 고맙게 생각한다.

내년에 IFLA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니 우리 협회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흐뭇하다. 앞으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체로서 더욱 발전할 것을 믿는다. 